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11. 3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0/27~10/31)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관련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 유입된 영향으로 환율은 하락 출발. 이어 외국인들의 국내 중시 매도세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경계감 등에 상승 전환
- 중반, 10월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연준의 금리인하 및 양적긴축 종료 가능성에 달러 약세 나타난 측면 반영하며 재차 하락했으나, 한-미 정상회담 관망세 속 하방 경직 흐름 시현
- 후반,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 해소되며 원화 강세 나타났으나, 예상보다 매파적인 파월 의장 발언에 1,420원선 하단 지지. 이어 주 후반, 연준 정책 불확실성에 달러 강세 이어졌으나 월말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되자 상승폭 되돌리며 1,420원대 중반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36.7	1,438.0	1,419.1	1,424.4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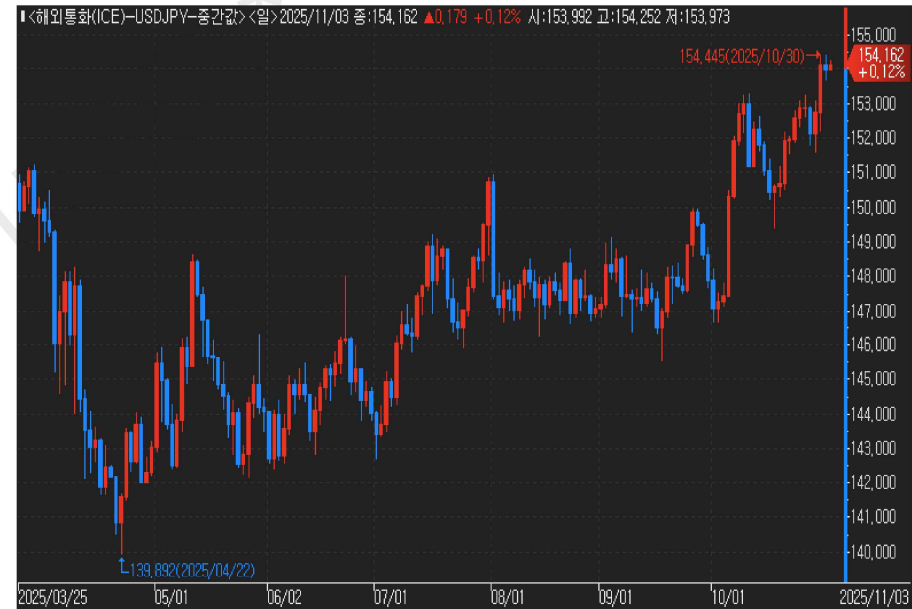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 환율은 연준 정책 경로의 불확실성 확대에 달러 강세 이어지는 가운데 상승 압력 받을 것으로 예상
- 시장은 연준의 12월 추가 인하를 예상했으나, 파월 의장이 이에 대해 선을 그은 데 이어 여러 연준 위원들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선호했음을 시사하는 등 매파적 스탠스가 부각됨. 이는 글로벌 달러 강세 자극하며 환율 상승 견인할 전망
- 한편, 예상보다 빠르게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한국 3분기 성장을 호조 등 원화 펀더멘털 강화 요인에도 강달러 등 대외 변수를 고려하면 1,420원선에서 하단 지지될 것으로 예상

예상거래범위
1,420원 ~ 1,445원



유로·엔화 동향 (10/27~10/31)



유로화 동향

- 주초,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소식에 유로존 경기 개선 기대가 커진 가운데, 프랑스 정국 불안도 다소 누그러지면서 유로화는 강세 출발. 이어 연준이 이달 회의에서 양적긴축 종료를 선언할 것이라 전망이 강화되자 달러 대비 강세 흐름 지속
- 중반, 연내 추가 인하 기대를 차단한 파월 의장의 호키시한 발언에 달러가 크게 강세를 보이면서 약세로 전환
- 후반, ECB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경계하며 신중한 스탠스를 보였음에도 1.15달러대로 추가 하락. 이어 주 후반, 유로존 10월 CPI 2.1%로 소폭 둔화되었다는 소식과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으로 인한 달러 강세 등을 반영하며 약세 흐름 속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628	1.1669	1.1522	1.1539	-0.0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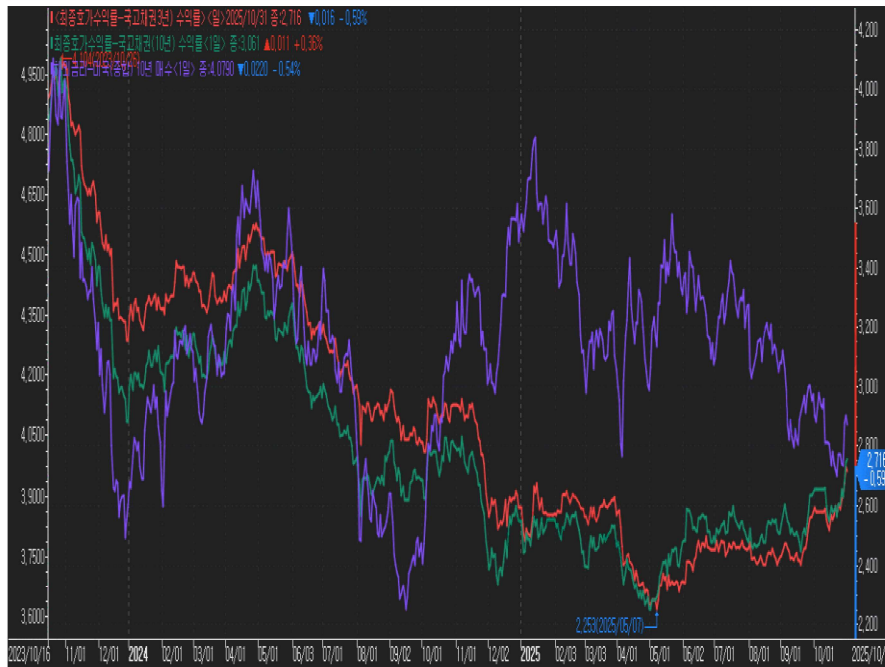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환율 관련 정책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일 재무상의 발언에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일 경제재생상이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과 일본 경제에 대한 환율 영향 등에 대해 언급하는 등 경계감 드러내자 큰 폭 강세로 전환하며 장중 151엔대로 하락
- 중반, 12월 금리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미 국채금리 상승하면서 미-일 금리차 확대된 영향으로 약세 전환
- 후반, BOJ 10월 금정위에서 향후 금리인상 시그널 부재했다는 평가 속에 큰 폭으로 약세 보이며 154엔대 진입. 이어 주 후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던 BOJ 회의 여파가 이어졌으나, 일 재무상의 구두개입성 발언과 예상을 웃돈 도쿄 CPI 등에 약세 흐름 일부 되돌리면서 154엔선 소폭 하회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2.9	154.4	151.5	154.0	+1.1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0/27~10/31)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활황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통화정책 제약 인식 등이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이어 3분기 국내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2%의 시장 예상 상회한 가운데 부동산 과열 우려 등으로 11월 금리인하 기대가 다소 약화되며 단기 구간 중심 금리 상승 지속
- 중반 들어, 한은 총재의 국내 3분기 성장에 대한 긍정 평가 속 부동산 관련 우려에 대한 국감 발언 등이 반영되며 상승 추세
- 후반 들어, 한-미간 APEC에서의 관세협상 타결 영향과 차월 방향성으로 인해 매파적으로 평가받은 10월 FOMC 결과 등을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 11개월 만에 최고치 상승. 이어 주 후반, 국고채 발행 계획 등 수급에 따른 구간별 변동성 장세 나타난 가운데 혼조 흐름 속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 미 9월 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며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커진 가운데 APEC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간 무역 갈등 봉합 기대가 커진 영향 등이 반영되며 사상최초 코스피 4,000선 돌파하며 출발. 이어 코스피는 APEC 정상회의 및 SK하이닉스 실적발표를 앞둔 관망세 속에 외국인 투자자의 대형 및 전기전자 업종 차익실현 등으로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간밤 엔비디아 상승 등이 뉴욕 증시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경주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기대와 미 FOMC 경계감 상존 속 코스피 4,080대로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 후반 들어, 코스피는 장초반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기대감 반영, 상승했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성명, 브리핑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난 가운데 실망 매물 출회로 소폭 상승 머문 흐름 후, 주 후반, 뉴욕증시 약세에도 장마감 후, 주요 기술주 실적 호조 소식 및 엔비디아 젠슨 회장 CEO의 APEC연설에서 한국 관련 언급 등에 따른 기대감 속 상승 마감